



## 2006년도 가축개량사업방향

윤상기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장)

가축개량은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적은 자원을 투입하여 품질이 좋고 싸게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선발과 교배를 통하여 가축의 능력과 형질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 볼 수 있으며 가축을 선발하고 이를 교배하고 하는 일련의 작업은 가축에 따라 1년 혹은 2-3년 이상 걸릴 수 있어 가축개량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축개량의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함은 물론 가축개량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현재의 소비자 수요보다는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하여 가축의 혈통관리, 능력검정, 유전능력평가 및 선발 교배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에 많은 농가 및 조직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과 인내 그리고 자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시장개방과 함께 점점 경쟁이 격화되는 농업의 여건 속에서 우리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분야가 바로 가축개량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매년 2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축산연구소 등 여러 기관 단체와 함께 가축개량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축개량목표는 10년마다 설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지난 2001년 한우, 젓소, 돼지, 닭에 대한 개량목표가 설정되었으나 여러 가지 시대적 요구와 개량기법의 개발 등으로 일부 재조정이 필요하며 또

한 새롭게 부상한 경제가축에 대한 개량목표의 설정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소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의 하나로 지난 결정 고시된 2010년까지 가축개량목표를 중간 점검하여 개량수준이 어디까지 도달하였는지를 파악하여 축산물 수요변화와 개량기술 발전 정도를 고려,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하고 소비자 동향변화, 생산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조사 분석하도록 하겠다.

또한 우리연구소에서는 한우고기 차별화를 위해 한우개량체계를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한우개량은 씨수소 선발과 우수정액 공급을 통한 개량사업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암소의 개량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한우개량속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농림부, 농협 등과 함께 육종농가사업을 도입하여 우수농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우수 암소의 개량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금년에는 개체식별코드를 이용하여 육종농가 보유암소의 혈통을 파악하고 이를 교배계획에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본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가 희망하는 경우 지역의 개량방향을 중점 반영한 특성화된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지수를 개발하여 한우의 개량방향이 보다 다원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한우브랜드의 차별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또는 브랜드별로 암소집단의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발 교배를 실시함으로써 개량을 촉진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지역단위 자율적인 한우개량체계 구축을 시범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젖소의 경우에는 북미의 소해면상뇌증 발생으로 생축 수입이 중단과 국내에서도 후대검정우의 생산 등 충분한 검정우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능력이 우수한 수정란을 이용한 씨수소 선발과 정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추진하겠다.

또한 유우균 능력검정에 참여하는 젖소의 혈통정보 부족으로 인한 젖소 유전능력평가의 정확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미경산우 번식기록 관리강화 및 조기 혈통등록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돼지는 검정체계의 개선을 통한 능력평가의 정확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먼저 성돈 출



---

하체중이 늘어남에 따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성장 및 번식형질 검정자료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절하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종돈농장 간의 혈연 연결도를 확보하기 위해 희망하는 종돈장에 대해 정액 공동활용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혈통 연계를 통한 종돈장간 종돈능력비교가 가능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난해 개발한 품종별, 성별, 초음파측정기기별 농장검정용 돼지 선발 지수식을 검정소 검정용 지수식까지 확대하여 보완해 나아갈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종돈장의 유전능력평가는 각 종돈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돈장별 개량방향에 맞는 유전능력평가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종돈장별 개량방향에 적합한 농장 현장용 개체육종가 추정시스템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가축개체식별체계의 효율화와 축산물생산이력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연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축개체식별체계는 그간 가축개량사업,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일부 사업의 참여 가축에만 활용되었으나 앞으로 '08년 쇠고기생산이력제의 전면 실시계획에 따라 적용범위가 전체 소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관련 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가축개량은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재원이 필요하며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워 관련 기관 단체나 농가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해지기 쉽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개량사업은 나의 몫이 아닌 남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인식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량은 축산업이 생존하고 도약하기 위해 지속되어야 하며 농가, 정부, 관련 기관? 단체가 하나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 개량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